

광양시 “시민·관광객 모이는 곳에 ‘팝업도서관’ 뜬다”

市, 올해 ‘이동형 서가’ 4회 운영 오는 13일 매화축제 현장 첫 선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등 다채 AR·XR 체험형 독서 공간도 제공

광양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지역 축제장과 근린공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동형 독서 공간인 ‘팝업도서관’을 가동한다. (사진) 스마트기기 중심의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독서의 가치를 되살리고 시민 밀착형 독서 문화를 지역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팝업도서관은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조성되는 이동형 도서관이다. 전문 사서가 직접 큐레이션한 도서를 현장에

서 자유롭게 읽고 다양한 독서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거점 공간으로 올해 지역 축제와 공원 등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동형 서가와 독서 프로그램을 결합한 팝업도서관을 총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팝업도서관의 첫 시작은 오는 13일 개막하는 ‘제2회 광양매화축제’ 현장이다. 매화문화관 뒷마당에 마련되는 팝업도서관 ‘비밀의 정원’에는 행사 콘셉트에 맞춘 테마 도서와 빈백, 텐트 등을 비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야외 독서 휴식처를 제공한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일정 시간 멈추고 책 읽기에만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를 비롯해 감성 포도주, 필사 코너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해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이어 다가오는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시립도서관의 통합 홍보부스를 중심으로 ‘책과 크는 아이’ 주제의 팝업도서관이 꾸려진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어지는 광양시의 단계별·생애주기별 독서 지원 정책을 상세히 안내하고, 북스타트 선정 도서를 현장에서 배부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장에서는 증강현실(AR)과 확장현실(XR)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한 체험형 팝업도서관

을 선보인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의 책 놀이 콘텐츠를 도입해, 듣고 말하며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 활동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0월 지역 내 상업시설 잔디광장에서 처음 선보여 3천여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던 야외도서관 ‘공원에서’ 프로젝트도 확대 운영한다. 시민 참여형 공모전과 문화 공연, 만들기 체험 등을 빈틈없이 보강해 광양을 대표하는 야외 독서 문화 축제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팝업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휴식과 소통을 경험하고 독서를 일상 속 즐거움으로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독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군, 12개 읍·면에 ‘맨발 산책길’ 조성

상반기 울포해수욕장 등 8곳 설치 향토길·세죽장 등 편익시설 구축

보성군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인근을 중심으로 12개 읍·면 전역에 각각 1곳씩 맨발 산책길을 조성한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총 21개 후보지를 신청받고 현장 조사와 입지 여건,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2곳을 확정했다. 상반기에는 노동면 어등산, 마력면 보성강둑, 검백면 대나무숲, 울어면 문화체육센터, 북내면 주암호변, 문덕면 투구봉, 회천면 울포해수욕장 곱솔림, 웅지면 옛 웅치초등학교 등 8곳을 우선 조성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보성읍 동운천 생태공원과 조성면 은림저수지 등 2곳을 추가로 만든



보성읍 망제산에 조성된 ‘맨발 산책길’에서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해당 대상지에는 황토를 포설하고 세죽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노면 정비와 잡목 제거를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방침이다. 나머지 벌교읍 칠동천 체육공원 인근과 득량면 조양마을 앞 2곳은 현장 조사와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공모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보성군에는 보성읍 관주산(3.6km)과 망제산(2.1km) 등에 맨발 산책길이 운영 중이며, 벌교읍 부용산 일원(5.7km) 산책길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맨발 걷기는 면역력 향상과 혈액 순환 개선 등 건강 증진 효과가 커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힐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 북하면 산나물축제 내달 18일 개최

장성군 북하면은 “최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축제 추진위원회 이장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북쪽 하늘 아래, 산나물축제’ 추진위원회를 갖고 축제 추진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4월 18-19일 이틀간 ‘면민이 기획하고 남녀노소 함께 주도하는 축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조선시대 임금님께 지역 특산품을 올린 ‘진상 행렬’이 재연되며, 오랜 세월 사랑을 지켜온 이들을 위한 ‘금혼식’도 흥미를 자아낼

예정이다. 프로그램 준비와 함께 축제 현장 준비도 시작했다. 북하면은 산나물 채취 체험장인 단전리 공동시범포 주변에서 제조 작업 등 주변 정비를 실시해 일찌감치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박종렬 축제추진위원장은 “어르신부터 청년까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 방침”이라며 “산나물의 고장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해림 북하면장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군 ‘2026 봄꽃 축제’ 음식 부스 운영자 모집

화순군은 9일 “2026 화순 봄꽃 축제”를 앞두고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선보일 음식 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역의 풍미를 담은 향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곳을 선정해

축제 기간 10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업체로 한정되며, 부스 입점료는 25만원이다. 접수 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

남도지회 화순군지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관련 세부 안내와 서류는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형재 관공체육실장은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봄꽃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담양을 담은 학생연합회 상반기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고,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담양교육지원청 제공)

담양교육지원청, 상반기 학생 리더십 캠프 성료

故 이태석 신부 헌신 조명 담양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과 따뜻한 리더십을 배우는 뜻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9일 담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담양을 담은 학생연합회 상반기 리더십 캠프’를 개최

하고,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따뜻한 사람의 리더십, 이태석 신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학생들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구호와 의료, 교육 봉사에 헌신한 이 신부의 숭고한 삶을 조명했다. 특히 학생들은 캠프 참가 전 관련 저서인 ‘울지

마톤즈 학교’를 미리 읽고 참석해 강연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으며, 타인을 위해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홍 담양교육장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사람과 사람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야말로 민주 시민의 필수 덕목”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이태석 신부의 실천하는 회생을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 ‘나라올라우주랜드’ 체류형 나들이 명소 주목

캠핑장 연계 1박2일 코스 구축 고흥 해장만 일원에 조성된 가족형 체험 관광시설 ‘나라올라우주랜드’가 인근 오토캠핑장과 연계한 체류형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나라올라우주랜드는 팔영대교에서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해안 관광축 중심에 자리 잡은 실내의 복합 어린이 테마 놀이터다. 총사업비 30억원(국비 20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준공한 이 시설은 우주선 모양의 건축 디자인과 나로호 이미지를 접목해 고흥만의 우주 테마를 실감나게 구현했다. 건물 1층은 그리기 체험존과 슈팅 게임존 등 휴게 공간으로, 2층은 그물망 종합 놀이대와 볼풀장, 트램폴린 등 신체 활동 중심의 놀이 시설로 꾸며졌다. (사진) 야외 공간 역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돼 해장만 오토캠핑장과 연계한 1박2일 가족 체류형 관광 코스로 활용도가 높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고흥군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차, 각 2시간씩 개방한다. 고흥군 산림정원과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해장만을 가족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혁 기자

여수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하세요”

20일까지...6개월 이상 등록 요건 5등급 경유차 올해 ‘마지막’ 보조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총 9천232대의 폐차를 지원했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전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중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올해부터 강화된 요건에 따라 여수시에 6개

월 이상 등록되고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교체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100%, 4등급은 70%를 지급한다. 3.5t 이상은 등급과 무관하게 100%를 지원하며,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최대 200%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가 5등급 차량 지원의 마지막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